

Section12

Global Eco-Museums and Tasks for Yeongwol Museum City
세계 에코뮤지엄 현황과 영월 박물관 도시의 과제

Japanese Ecomuseums

- the Significances and Challenges

일본의 생태 박물관

- 의미와 도전

OHARA Kazuoki

오하라 가즈오키 (요코하마 대학, 일본)

제1회 영월연세포럼

2011 Yeongwol, A World of Museums

일본의 생태 박물관 - 의미와 도전

오하라 카즈오키 (요코하마 국립대 건축과 교수)

1. 생태박물관의 개념

“생태박물관”은 한 지역 전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생태학적 활동을 가리킨다. 생태 박물관은 (1) 헤리티지: 주어진 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 (2) 참여: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참여하고 관리와 운영, (3) 박물관: 박물관으로서 보존된 자연과 전통의 기능 등 3 개 요소로 되어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유산”, “참여”, “박물관” 세 요소는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밀접하게 통합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이 세 요소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이상적 균형을 이룬 생태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의 생태박물관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생태박물관”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요소를 지닌 많은 흥미로운 지역사회활동이 일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방 주민들이 그들의 땅과 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나 전통 가옥 거리를 보존하려는 활동 등이다. 이 모든 노력은 유산과 참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일 박물관학의 손길이 닿으면 이들은 쉽게 온전한 생태박물관 사업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2. 현재의 일본 생태박물관 : 역사

생태박물관(ecomuseum)의 개념은 1960 년대 프랑스에서 탄생했다. 생태박물관이란 용어는 프랑스어의 ecomusee 에서 왔으며, 생태학(ecology)과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이다. ecology 나 economy 의 “eco”는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oikos”에서 나왔다. 생태박물관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그 전시방법은 살아있는 역사운동의 전시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스웨덴의 스칸센 야외 박물관이 처음 채택한 이 운동은 지난 날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종합적인 방식으로 재현한 "가옥 박물관"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 최초의 야외 민속박물관은 1956년 설립된 日本民家集落博物館이다. 이 무렵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야외 박물관은 파괴의 위기를 맞은 건축적 중요성을 지닌 전통건물을 응급조치로 이전하고 보존했다. 민중의 생활 환경을 복원하여 박물관학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전시를 한 것은 산슈 아스케 야시키(三州足助屋敷)의 설립에서 보듯이 1980년대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생태박물관은 이러한 야외박물관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 생태박물관의 개념을 정식으로 처음 도입한 사람은 츠루타 소이치로(鶴田総一郎)였다. 그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회의를 소개하는 보고서에서 이를 "환경 박물관(environment museum)이라고 지칭했다. 당시에는 과학과 자연사를 전공하는 박물관 전문가들만이 이 말을 이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환경과 관계된 생태박물관으로 이해했다. 생태박물관은 오늘날 지역개발활동과 관련해서 누리고 있는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생태박물관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년이 지나서 생태박물관은 드디어 "생태에 초점을 둔 박물관의 한 범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생태라는 용어가 일본인들에게 잊혀져 있었다.

생태박물관이란 용어는 1980년대 중반과 후반, 경제적 거품 붕괴와 함께 재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도시의 자본집중과 팽창한 도시 경제에 힘입어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사업 지출 증가를 검토하던 때였다. 그 무렵까지는 상이한 유형의 박물관들이 여러 지역에 차례차례 세워지고 있었다. 붕어빵 식 전시 시설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마을과 도시 마다 세워졌다. 이런 시설은 일단 세워지면 막대한 유지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지방 정부들은 이런 부담에 지쳤고, 이런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후회와 함께 깨닫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율적인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추진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설을 짓지 않아도 되는 생태박물관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데자네이로 유엔회의를 계기로 생태학은 널리 알려진 용어가 되었다. 생태박물관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에 학습 시설을 만들기 위해 박물관에 유사한 전시와 안내판이 마련되었으며,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것을 생태박물관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생태박물관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고조되었다. 여러 지방자치체가 생태박물관 설립 계획을 세웠고, 지방주민들은 생태박물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은 다소 불안정했다. 이들 대부분이 독자적인 조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지자체의 직원이

상주하는 연락사무소에 불과했고, 다른 것은 서류와 지도만을 모아놓고 있는 정도였다.

3. “농촌공간박물관”과 생태박물관

일본에는 생태박물관을 진흥하기 위한 공식 제도가 없다. 그렇지만 1998년 농림수산성에 의해 채택된 “농촌공간박물관”(田園空間博物館) 프로그램은 자연환경,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 그 아이디어는 대부분 프랑스의 ecomusee 에서 나왔다. 이것이 생태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희귀한 프로그램의 하나다. “농촌공간개선프로그램”은 그 토대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0여 곳이 이미 선정되어 개발되었다.

농촌공간박물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작성된 “농촌공간박물관 개발계획”의 핵심은 (1)지역역사와 전통문화에 충실한다, (2) 핵심 시설과 핵심시설 주변지역 여러 곳에 산재된 부속시설 또는 전시시설은 보행로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3) 전시는 전통 농업환경의 재현, 아름다운 농촌 풍경의 복원 등 야외 전시로 국한한다, (4) 농촌공간박물관은 지역주민에게 자연경관과 거리풍경 미화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한다, (5)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 또는 반관반민기업이 박물관 운영을 맡는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성 산하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박물관의 발전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들이 모두 전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공간박물관이 생태박물관의 일본판으로 기능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생태박물관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활동들의 집합이며, 농촌공간박물관 프로그램이 박물관 활동을 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둘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공간박물관으로 지정된 한 지역이 사실상 지역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박물관이 될 수도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농촌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농촌공간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생태박물관이 될 수 있는냐는 물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많은 경우 후자에 대하여 전자는 충분조건이기는 하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박물관과 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본부가 되는 조직을 갖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한 일이다. 생태박물관 활동이 필요로 하는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생태박물관 발전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활동과 관리가

없이 형식만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박물관이 될 수 없다. 생태박물관의 독자성은 그것이 물질적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환경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생태박물관 형성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생태박물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오해도 생겼고, 이것은 앞으로 대처를 해야 할 일이다.

4. 오늘날 일본에서 갖는 의미

왜 생태박물관이 오늘의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묻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아래의 세가지 요소 때문에 원래 1960년대 프랑스에서 탄생한 생태박물관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것으로 본다.

(1) 정체성의 재확인

정체성 재확인의 필요성 증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오늘의 일본이 1960년대의 프랑스와 비슷한 사회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사회의 균형 상실, 심리학적으로 억눌린 성인과 어린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사회의 자치와 지방 차원의 역동성 발휘가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나아가서 환경 창조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이 추구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부 도시 사람들도 익명성의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개인들이 동질화되고 기호화되는 첨단 정보 기반 사회에서 생태박물관은 정체성 탐색에 효과적인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생태박물관은 사람들의 시간적 공간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들은 그들이 서 있는 땅과 친해 질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지방 역사를 배움으로써 오늘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음미하게 된다. 그러나 생태박물관의 영역 개념은 애매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라. 지방사람들이 주관적인 의향과 관점으로 여러 옵션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태박물관의 주제인 것이다. 생태박물관 활동의 장려는 지방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과 방향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네트워크 연결의 중요성

최근의 생태학 붐으로 상징되듯, 생태시스템 개념은 널리 수용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독립된 자아가 아닌 사회의 통합된 구성원으로서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과 소비의 관념을 분리하는 대신 이 양자 사이의 좋은 균형이 사회제도를 형성한다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나아가서, 옛 것을 배척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오늘날의 지역개발의 특징은 건설적 노력, 즉 재활성화와 수렴, 친화와 협동, 표현과 연출 등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 박물관

건설 붐이 잠잠해 지면서 기존의 지방 유산을 지방 차원의 상호 작용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다각적이고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것은 지방의 유산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전용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박물관의 기본 원칙이다.

같은 취지를 가진 상이한 활동 집단이 한 지역에 공존한다고 상정해 보자. 그들의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이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처럼 동일 분야에서 상이한 집단을 네트워크로 묶는 것은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연 관찰 집단과 역사적 건물 연구집단처럼 상이한 관심집단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같은 장소를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 집단의 상호 작용은 지역의 다층적 총합적 중요성을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역 개발 활동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말로 하면, 생태박물관은 주제공동체를 수단으로 하여 지방 공동체의 재구조화를 실현토록 해 줄 것이다.

(3) 연구로서의 지역개발 필요성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개발과 평생학습을 결합하고, 지역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 일(활동-지향 학습)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해 졌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의 환경을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지방 주민의 손에 의한 지역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계획이나 환경 보전 그 자체가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학습과 학습의 후세 전승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박물관으로서 생태박물관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생태박물관의 활동은 결코 끝나는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재검토되고 변천한다. 그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현지주민들이다. 사람들은 지역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연속성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합치하는 방향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현명해야 한다. 동시에 생태박물관은 이처럼 현명한 시민을 생산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5. 일본 생태박물관들이 직면한 도전 - 1

: 판박이 모델 고집으로부터의 해방

일본의 생태박물관 개념은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다. 그것이 도입될 당시 정보가 별로 없었다. 그 결과,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생태박물관의 아이디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태박물관을 판박이 모델로 본뜨려고 하는 것도 널리 퍼진 오해 때문이다. 생태박물관은 자유로운 형식을 가져야 하며, 지역의 특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징을 부정하는 것은 사고를 포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생태박물관에 대한 가장 크고 널리 퍼진 오해는 그 형태와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박물관은 “핵심 박물관/시설”, “위성박물관”, “탐방로” 등 세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농촌공간박물관의 세가지 요소이다. 이것은 또한 야마가타현의 아사히마치 생태박물관이 채택한 모델이다. 문제는 이것이 생태박물관의 확립된 형식이라고 알려진 점이다. 물론 생태박물관은 이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박물관의 필수조건도 아니고 확립된 정의도 아니다. 이러한 오해가 문제다.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화된 형식 지향적 생태박물관이 널리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핵심”과 “위성”이란 말이 등급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핵심 시설의 존재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분산된 현장들을 네트워크로 총괄하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질 관리체가 필요해서일 뿐이지 각 현장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관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생태박물관은 분산된 현장을 보여주는 관광지도를 한데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현장을 지휘하고 연결시키는 기구를 본부 또는 핵심 시설이라고 부르며, 이는 생태박물관의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핵심 시설은 통제의 권위가 없는 네트워크의 지원체에 불과하며 다른 현장 보다 등급이 더 높지 않다. 위계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태박물관의 철학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이다.

6. 일본 생태박물관이 처한 도전 -2

: 박물관학과의 관계

일본의 많은 생태박물관이 맞고 있는 둘째 도전은 박물관 및 박물관학과의 소원한 관계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에 있는 박물관의 대부분은 현지 주민들 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또한 박물관 원래의 역할이 연구와 훈련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단지 전시시설일 뿐이라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생태박물관은 옛 물건의 저장소, 고객유치, 기념품점, 또는 전시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은 박물관의 정의가 옹계 이해되지 않고, 박물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박물관학이 취약한 입장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인 박물관학자들은 생태박물관을 박물관과는 거리가 먼 지역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여긴다. 생태박물관은 박물관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지역연구를 위한 박물관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물관 학자 대부분은 생태박물관과 박물관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태박물관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다. 지역과 지역 사람들에 초점을 둔 공동체 지향 박물관은 일본에서는 소수파에 속한다. 일본의 박물관법은 ICOM 의 박물관 정의에서 보는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한 서비스” 역할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본정신에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으로서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한편, 일부 생태박물관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태박물관을 일반 박물관과 차별화 하는 일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태박물관이 전통적 박물관을 부정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통적인 박물관 방식을 비하하는 일조차 있다. 생태박물관 대표와 박물관학자들 간의 건전하고 전면적인 협력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생태박물관의 대부분은 단지 "박물관 놀음"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박물관 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은 때로 비학술적인 아마츄어 생태박물관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면한 과제는 이런 현실을 비판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박물관의 사회교육 활동을 개발하는 일이다.

7. 일본 생태박물관이 처한 도전 - 3

: 대중 관광으로부터의 해방

일본 각지의 에코박물관에서는 지역 밖에서 오는 내방자나 관광객을 지역의 주민에 의한 자원봉사 가이드가 마중하고 활기차게 안내를 하는 모습이 그 본질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중에는 가이드의接客기술이나 화술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을 되풀이하는 지역도 있고, 때로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방자를 즐겁게 해드리려 하는 지향도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안내를 하는 주민과 내방자의 어느쪽도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win-win situation에 의해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에코박물관에 있어서 지역의 자랑을 내방자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본인에 대해서의 즐거움이다. 참관하는 내방자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게 된다. 어느쪽도 유복해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많은 에코박물관이 열리고 있는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그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산업특성을 살려 외부에서의 내방자에 대하여 그 풍부함을 소개함으로써 주민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랑을 더 한층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것이 강조되는 나머지 외부 내방자에게만 활동이 한정되어 때로는 거기에서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것에 의해 상업주의적 관광에 의한 지역부흥으로서 정착해버리는 예도 있다. 고객유치를 최대 목적으로 삼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때, 「지역부흥」의 이름 밑에서 대량의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들인 실패경험을 가진 지방자치체가 다음에는 시설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싸게 치이는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 자세로 「에코박물관」을 표방하는 사례도 보여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단지 지역에 점재하는 자원을 관광 루트로 묶은 관광 지도를 작성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 유지비용이야말로 걸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지속적인 박물관활동이 보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에코박물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관광객에 대하여 영합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에코박물관의 역할은 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자랑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유산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지역을 키우는 의욕을 높이는 것에 의해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의 활성화는 경제적 활성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Alternative tourism 라는 방법이 최근 각지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상업주의적·수탈적인 관광이 아니라, 지역을 내면에서부터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에코박물관과 공통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은 자주 보이는 상업적인 관광형태와는 달라, 최소한 관광에 의해 자연유산이나 지역문화등의 지역자산을 자풀이하여 수익화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유럽과 이탈리아의 에코박물관의 동향에 대해서 Maggi 등은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상업적인 관광을 hetero-direct tourism 으로서 위험시 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많은 에코박물관에서는 관광지화를 목표로 한 활성화에 기대하는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 실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장기모델에 있어서의 목표나 계획성이 필요하며 관광수입에 의한 지역경제는 단기적인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맺음말—Sustainable community과 에코박물관의 역할—

근대 시대에 우리들은 잇달아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되는 수많은 건축물이나 사회기반을 건설해 왔다. 협의로는 건설하는 것을 「마을 만들기」(machi zukuri)라고 칭해 왔다.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만든다」는 것을 주축에 둔 지역사회의 발전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그러나 현대 그리고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에 요구되는 것은 빈터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거기에 있는 것을 조정하고, 통합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다음의 평형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사회질서를 재편성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조정의 프로세스야말로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코박물관은 그 존립기반을 어떠한 일정한 지리적 영역(=지역이나 도시)에 요구하고, 그 구성원(=주민)에 의한 학습을 통하는 사회적조정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에 본질적으로는 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과 지극히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에 맞는 창작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에코박물관은 다른 박물관활동과 같이 문화적인 사회 교육 활동의 하나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지역의 유산을 보호·보전하면서도 제도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지역을 계승해 가기 위한 사람만들기에 주력 한다. 지켜야 할 문화재나 환경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늘려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에코박물관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운동이며 결승점으로서의 명확한 목표상이나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다. 원래 추구해야 할 지역의 미래상은 지역의 환경과 주민자신 속에 있다. 전문가로서의 디자이너는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에는 뛰어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에코박물관에 있어서는 결코 전문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요하지는 않는다. 주민상호가 교류하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또 그 동기를 부여하고, 배우의 대상으로서의 지역 자원이나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에코박물관이다. 그리고 주민자신에게 잠재하고 있는 디자인력을 발굴하고, 그 힘을 지역문화의 계승이나 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이 에코박물관에 요구되고 있다. 그때그때의 지역사회나 환경에 몰두하는 주민의 잠재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해 catalyst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디자인하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배우의 디자인, 메타 디자인의 수법이 에코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박물관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이다. 즉 「생산을 위한 디자인으로부터 이용을 위한 디자인에」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에코박물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대상물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거기에 있는 것을 이어서 엮어 넣음으로써 지역전체를 박물관과 동등한 것으로 해가는 활동이다. 이미 건설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부터 건축물이나 built environment의 가치는 그 이용 방법에서 찾아내야 한다. 가치관이나 시점을 제시하는 것, 또는 가치를 재배치하는 것, 이러한 것이야말로 현대 환경 디자인으로서의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든다」는 것의 주박으로부터 도주할 수 없었던 근대 시대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었던 마을 만들기의 원점을, 「만든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에코박물관이 재인식 시켜준다고 생각된다.